

 국토교통부	<b>보 도 자 료</b>		
	배포일시	2019. 6. 7.(금) 총 3매(본문2)	
담당 부서 철도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김현정, 사무관 구승범, 주무관 안남현 • ☎ (044) 201-4643, 4642	
보 도 일 시		2019. 6. 7(금) 10시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## 한국, 정회원 자격으로 국제철도협력기구 장관회의 첫 참석 우즈벡 장관회의서 23년 국제철도협력기구(OSJD) 장관회의 유치 성공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2019년 6월 4일부터 7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진행되는 제47차 국제철도협력기구(OSJD) 장관회의\*에서 대한민국이 제51차 OSJD 장관회의(2023년)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.

\* 회원국 장관급이 참여하는 OSJD의 최고 의사결정 회의

- 국제철도협력기구(OSJD)는 1956년 6월 유럽-아시아 간 국제철도 운행을 위해 창설된 국제기구로서 국제철도운송협정을 관장하고 국제운송 표준 원칙을 수립한다.
  - OSJD에는 러시아, 중국, 몽골, 북한 등 29개 정회원국, 철도 운영 회사 등으로 구성된 45개 제휴회사, 7개 옵저버 회사 등이 참여하여 유라시아 철도 운영 및 기술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.
  - 대한민국은 2018년 6월 7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개최된 제46차 OSJD 장관회의에서 기존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29번째 정회원국이 되었다.
- 이번 제47차 OSJD 장관회의는 대한민국이 OSJD에 정회원으로 가입한 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장관회의로, 국토교통부 김경욱 제2차관을 비롯한 24개국의 장관급 대표단과 UIC(국제철도연맹), EEC(유라시아 경제 위원회), OECD ITF(국제교통포럼) 사무총장 등 관련 국제기구가 참석하였다.

○ 이번 회의에서는 ① 향후 OSJD 장관회의 개최장소, ② 대한민국 SMPS·SMGS 가입, ③ 2018년 OSJD 활동 결과, ④ 2020년 이후 OSJD 업무 프로그램 등 14개 의제가 논의되었다.

○ 대한민국 대표단(수석대표 : 국토교통부 김경욱 제2차관)은 제51차 OSJD 장관회의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섰으며, 2023년 개최예정인 제51차 OSJD 장관회의를 국내 유치하는 데 성공하였다.

\* 장관회의 유치 순서 : 헝가리(48차, '20년) → 북한(49차, '21년) → 루마니아(50차, '22년)

- 또한, 우리나라의 국제철도화물운송협정(SMGS) 및 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(SMPS) 가입에 대한 각 회원국의 지지를 확보하였고, 향후 OSJD 위원회 및 회원국과의 협의 등 가입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.

○ 아울러, 우리 대표단은 러시아 대표단(수석대표 : 러시아 교통부 Vladimir Tokarev 차관)과 별도로 양자회의를 갖고 우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며,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ICC\*에 참석을 요청하였다.

\*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, 9.3~5 / 서울 COEX

- 러시아측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추진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의향을 표명하고, 추후 GICC 회의 등에서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.

□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“2023년으로 예정된 제51차 OSJD 장관회의를 대한민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된 만큼,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회원국 간 국제철도 운송을 위한 협력방안도 지속적으로 도출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.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구승범 사무관(☎ 044-201-464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 참고 1

## 국제철도협력기구(OSJD) 개요

<p>명 칭</p>	<p>▶ 국제철도협력기구 (OSJD) * OSJD는 국제철도협력기구의 러시아어 표기 약자인 <b>ОСЖД</b>를 영어로 표기한 것</p>	
<p>본 부</p>	<p>▶ 폴란드 바르샤바 소재</p>	
<p>설 립</p>	<p>▶ 1956년 6월 * 구소련 체제의 사회주의 국가 및 동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동유럽-아시아 국가 간 철도운송을 위해 설립</p>	
<p>회 원 국</p>	<p>▶ <b>정회원국</b> (29개국) - 아제르바이잔, 알바니아, 벨라루스, 불가리아, 헝가리, 베트남, 조지아, 이란, 카자흐스탄, 키르기스탄, 중국, <b>대한민국</b>, 북한, 쿠바, 라트비아, 리투아니아, 몰도바, 몽골, 폴란드, 러시아, 루마니아, 슬로바키아, 타지크스탄, 투르크메니스탄, 우즈베키스탄, 우크라이나, 체코, 에스토니아, 아프카니스탄</p> <p>▶ <b>옵저버社</b> (7개 기업) - 도이치반, 그리스철도공사, SNCF, 핀란드철도공사, 세르비아 철도공사, 헝가리 철도, 러시아연방여객회사</p> <p>▶ <b>제휴회사</b> (45개 기업) - 회원국 및 비회원국 철도관련기업</p>	
<p>기 능</p>	<p>▶ 유럽-아시아간 철도복합운송실현을 위한 국가간 협조 ▶ 국제철도여객·화물운송협정(SMPS, SMGS) 및 국제철도여객·화물운임(MTT, ETT) 등 관장</p>	
<p>주요조직</p>	<p>▶ 장관회의 (정부참여, 최고의결기관) ▶ 사장단회의 (철도운영기관 참여) ▶ OSJD 위원회 (사무국 역할 수행)</p>	
<p>재정운영</p>	<p>▶ 예산규모는 약 530만 스위스 프랑 ▶ 예산의 50%는 회원국이 1/27씩 균등부담(쿠바, 알바니아 제외), 잔여 50%는 철도 길이에 따라 부담(우리나라 연간 약 2억원 부담)</p>	
<p>그간경위</p>	<p>▶ '14.3월 : 코레일 OSJD 제휴회원 가입 ▶ '15.5월 : OSJD 사장단회의 개최(서울, 코레일 주관) ▶ '15~'17년 : 매년 정회원 가입 신청, 북한의 반대로 무산 ▶ '18.6월 : 만장일치(북한찬성)로 OSJD 정회원 가입 ▶ '19.4월 : 제34차 OSJD 사장단회의 개최(서울, 코레일 주관)</p>	